

“열 번 읽었을 때는 한번 읽었을 때와는 다르다”

옛 사람의 계획적 독서법...
독서를 통한 ‘득력’ 중시해

안대회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책임연구원 · 계간 《문헌과해석》 편집인

옛 사람들의 독서방법은 오늘날과는 다르다. 그들은 다독과 섭렵보다는 속독을 중시했다. 책의 지식을 자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독서를 계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독서정한’이라는 규정사항도 마련했다. 꼭 암송해야 할 책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읽기를 반복했다.

두목(杜牧)은 “날마다 10지(紙)의 책을 읽어, 한 달이면 한 상자 책을 읽네(一日讀十紙, 一月讀一箱)”라고 노래했는데, 하루하루 읽은 글이 쌓여 한 상자를 채우는 즐거움을 엿볼 수 있다.

옛 독서인들의 문방구 가운데 ‘서산(書算)’이란 물건이 있다. ‘독서계산기’ 정도로 풀이할 이 물건은 책을 몇 번 읽었는지를 계산하는 도구다. 요즘과 같은 독서풍토라면 저런 도구는 하등 필요가 없을 것이요, 실제로 서산과 유사한 문방구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러나 대강 섭렵하는 독서보다 수없이 반복해 소리내 읽는 독서를 중시했던 시절에 서산은 무척이나 애용된 문방구였다.

텍스트를 자기화하는 속독 중시해

독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도 시대에 따라 다른 법이다. 전통적인 독서법은 요즘과 비교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독서법을 중시한 주자(朱子)의 말을 들어보자. “책은 모름지기 속독(熟讀)해야 한다. 이른바 책이란 물건은 한가지다. 그러나 열 번 읽었을 때는 한 번 읽었을 때와는 정말 다르고, 백 번 읽었을 때는 열 번 읽었을 때와는 또 전혀 다른 법이다”고 해 열번이고 백번이고 읽어서 책을 완전한 소유물로 만드는 속독을 요구했다. 다독(多讀)은 속독의 방법이고,

속독은 정독(精讀)의 방법이었다. 이런 방법을 골자로 하는 주자의 독서법은 전통시대의 독서법을 대변한다.

이렇게 다독을 중시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야 할 책이 있는가 하면, 꼼꼼히 읽어야 할 책이 있고, 심지어는 완전히 암송해야 할 책이 있다. 그런 차이를 속독과 섭렵(涉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속독은 선택된 책을 깊이 있게 읽는 독서요, 섭렵은 많은 책을 대강대강 읽는 독서다. 둘 다 필요한 독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우열에 대해 황산곡(黃山谷)은 이기중(李幾仲)에게 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자가 박학을 좋아하다 보면 정밀하지 못한 병폐의 발생이 늘 염려된다. 그렇다면 온갖 책을 두루 보는 것보다 차라리 한 가지에 정밀한 것이 낫다. 그 다음에 남은 힘이 있을 때 다른 책을 본다면 여러 책을 섭렵해도 그 정수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대개 나의 주관으로 책을 본다면 곳곳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책으로 나를 박학하게만 한다면 책을 덮고 나면 망연자실할 뿐이다.” 황산곡이 섭렵보다 속독을 권한 이유는 독서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많다는 것이었다. 섭렵할 경우 정밀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속독을 하면 책의 지식을 자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옛날의 독서는 독서를 통해 힘

을 얻는 것, 즉 ‘득력(得力)하는 것을 중시했다는 사실이다. 그저 읽는 데 그치는 독서가 아니라 자기 관심사, 자기 학문의 바탕을 독서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속독과 속독을 위한 계획적 독서가 필요한 것이다.

계획적 독서를 위한 ‘독서정한’

득력을 위한 책이라면 옛날에는 유가경전이 최우선이고, 이 경전은 반드시 암송해야 했다. 그뿐만 아니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역사책을, 문장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문장을 역시 경전처럼 암송했다. 서산을 이용해 자기가 몇 번을 읽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소리내 글을 읽었다. 이런 전통적 독서법을 ‘독서정한(讀書定限)’의 관례에서 또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 독서정한이란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읽는 순서, 읽는 수효 즉 독수(讀數), 독서의 기간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독서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사항이다.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읽어야 할 책의 내용과 스타일의 차이가 적지 않지만 전형적인 것을 한두가지 살펴보자. 송대의 저명한 문인인 구양수(歐陽修)가 아들에게 준 글의 한 대목이다.

“글자의 수를 헤아려보니, 《효경》은 1,903자, 《논어》는 11,705자, 《맹자》는 34,685자, 《주역》은 24,107자, 《상서》는 25,700자, 《시전》은 39,234자,

《예기》는 99,010자, 《주례》는 45,806자, 《춘추좌전》은 296,845자였다.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해 날마다 3백자씩 외운다면 4년 반이면 다 마칠 수가 있다. 조금 우둔한 사람이라서 그 반으로 줄여 외운다 해도 9년이면 다 외울 수가 있다.”

암송해야 할 책의 자수까지 일일이 헤아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수를 계산해 꼭 필요한 경서는 4년이 걸릴 것이고, 좀 능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9년이면 다 외울 수 있다고 추정했다. 경서는 꼭 암송해야 하므로 날마다 3백자씩 외워 4년 만에 끝마치라는 당부를 한 것이다. 그의 계산법은 그다지 가혹하지 않은 현실적인 독서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읽어야 할 책이라면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것을 중시한 시절의 독서법은 저러했다.

암송과 독수 꼼꼼히 기록한 조선시대 학자들

조선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글에는 독서법을 제시한 것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사서삼경을 중심으로 암송할 과정을 적은 이 재(李裁)의 《서사윤송(書社輪誦)》 1권이 그런 종류의 책이다. 홍길주(洪吉周)는 《숙수념(孰遂念)》《사부송유(四部誦惟)》 편에서 암송해야 할 글의 목록과 읽어야 할 책의 순서, 과목, 시간, 자세를 목록으로 만들어 실천했다. 광범위한 독서를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했는지 썼다. 그 뿐만이 아니다. 18세기의 학자 유만주(兪晩柱)는 《흠영(欽英)》이란 실로 방대한 독서일기를 남겼다. 이 책에서는 암송해야 할 책은 몇 번 읽었는지를 꼼꼼히 밝혔고, 거저(巨著)인 경우에는 날마다 얼마씩 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록해놓았다. 장구한 독서 계획을 세워서 책을 읽고, 저서 역시 계획적 구도에 의해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계획적인 독서의 구체적 모습을 찾아보자면, 바로 책의 암송과 몇 번을 읽었는가의 두 가지 특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여기서 사서삼경과 같은 ‘숙속지문(菽粟之文)’은 웬만하면 암송하는 것이므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하고, 백번 단위로 읽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암송과 독수(讀數)의 강도가 높은 것을 위주로 보자. 방대한 저작 전체를 암송한 몇 명의 사례를 들어보

면, 송(宋)의 홍매(洪邁)는 《자치통감》을 세 번이나 필사했고, 금(金)의 종실(宗室) 한 사람은 그 책을 30여 차례나 읽었다. 조선의 학자 유희춘(柳希春)은 《주자대전》을 암송했고, 송익필(宋翼弼)은 《주자어류》를 암송했는데, 조 헌(趙憲)은 그 두 저서를 모두 암송했다고 한다. 《자치통감》은 294권, 《주자대전》은 124권, 《주자어류》는 140권이니 혀를 내두를 정도의 방대한 저작이다. 그런데 이 분들은 그 책을 세 번이나 필사하고 암송했다고 하니 경탄을 금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들의 학문의 깊이와 송재(誦才)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정성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의 저명한 문장가들은 좋아하는 글을 수천번씩 읽는 다독의 방법을 실천에 옮겼다. 김일손(金駟遜)은 한유(韓愈)의 문장을 천번, 노수신(盧守愼)은 《논어》와 두시(杜詩)를 2천번, 최 립(崔 崧)은 《한서》를 5천번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항적전(項籍傳)》은 그 두배를 읽었고, 차운로(車雲輅)는 《주역》을 5천번, 유몽인(柳夢寅)은 《장자》와 유종원의 문장을 1천번, 정두경(鄭斗卿)은 《사기》를 수천번 읽었다고 한다. 웬만한 능력이라면 2백번 정도 읽으면 암송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1천번 2천번을 예사로 읽었다. 이들이 외우지를 못해서일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모범적인 문장의 반복적 독서를 통해 득력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독을 한 것이라고 보인다. “독수(讀數)를 정해놓고 숙독을 하되, 독수를 채웠다 하더라도 암송하지 않았으면 암송할 때까지 읽어야 하고, 독수를 채우지 않았으면 이미 암송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독수를 채워야 한다”는 엄격한 독서율도 세우고 읽었다.

1억번 넘게 《사기》 읽은 김득신

이렇게 다독의 독서법을 말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될 분이 바로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이다. 17세기 시단을 대표하는 그는 좋은 글이면 최소 천번, 그보다 심하면 만번 이상을 읽었다. 심지어 《사기》〈백이전〉은 너무 좋아한 나머지 1억 1만 3천번을 읽었다고 하는데 가치 상상을 초월하는 독수(讀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는 옛날 36편을 읽고 각기 몇번을 읽었는지를 밝힌 <고문36수독

수기(古文三十六首讀數記)에서 자기의 독서내력을 소상하게 기록해놓았다. 글의 말미에서 “《장자》와 《사기》《한서》《대학》《중용》을 많이 읽지 않은 것은 아니나 만독(萬讀)의 수에 이르지 않았기에 이 독수기(讀數記)에 신지 않았다. 너희 자손들이 이 독수기를 읽는다면 내가 책읽기에 게으르지 않았음을 알리라!”고 했다. 이 정도의 독서열이라면 경탄하지 않을 자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다산 정약용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상하 수천년의 시간과 중횡으로 3만리 드넓은 지구상에 독서에 열심이고 굉장한 분 가운데 백곡을 으뜸으로 쳐야 할 것이다”고 추켜세운 것이리라.

이런 전통적 독서법을 현대에 곧이곧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한문을 구사하던 시대의 낡은 독서법으로 팽개치고 거들떠도 보지 않을 만큼 낡고 우둔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독서와 학문을 향한 진지하고 경건한 자세가 있어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최근 윤오영의 글에서 “고전은 공부하고 신간은 섭렵하라. 고전에서 숨은 힘을 기르고 신간에서 새로운 힌트를 얻으라”고 말한 대목을 읽었다. 숨은 힘이 되는 고전을 전통시대의 계획적 독서방법의 정신을 살려 독서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